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 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이 해외진출과 신규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APM T, 그루지아 포티항만(Poti Sea Port)운영 참여-----	2
□ 중국 원저우(温州)항 2015년까지 15개 선석 개발 예정-----	3
□ 터키 Hayat Kimyat사에 세계적인 물류 플랫폼 건설-----	4
□ 아일랜드 Belfast harbour, 9,200백만 파운드 투자 결정-----	5
□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6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이주호 책임연구원(02-2105-2890, jooho@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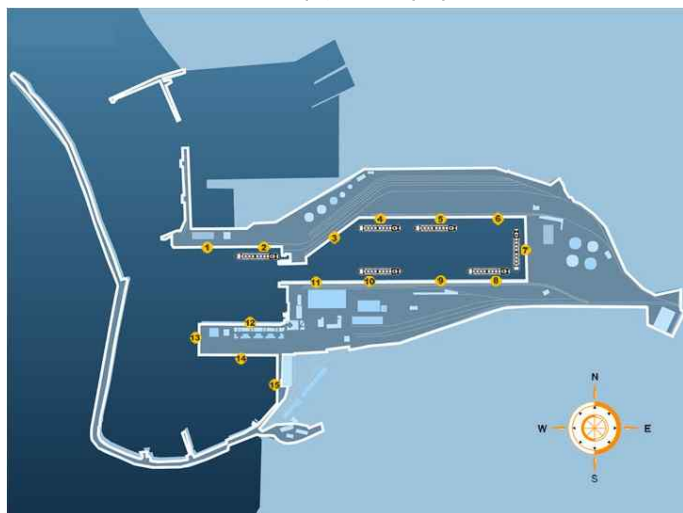
□ APM T, 그루지야 포티 항만(Poti Sea Port) 운영 참여

- APM T가 흑해 동안에 위치한 그루지야의 포티 항만(Poti Sea Port)의 지분 80%를 인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지분은 아랍 에미레이트의 Ras Al Khaimah Investment Authority(RAKIA)로부터 획득하였으며, APM T는 RAKIA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항만을 운영할 계획임
 - APM T의 사업개발(Business Development) 담당 부사장인 Hans-Ole Madsen은 “RAKIA는 지난 3년간 포티항만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역 물류허브로서 그루지야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항만개발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APM T에서는 포티항만의 지속적인 성장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흑해 지역은 광물자원과 숙련된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자연스럽게 APM T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음
- APM T는 포티항만의 시설 업그레이드와 확장에 향후 5년간 약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포티항만은 현재 15개 선석, 총 2,900m의 선석길이, 그리고 20개의 컨테이너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 등 국가의 유럽교역에서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루지야 포티항만 위치>



<포티항만 배치도>



자료 : CI-online, 2011.4.25. / www.apmterminals.com 보도자료, 201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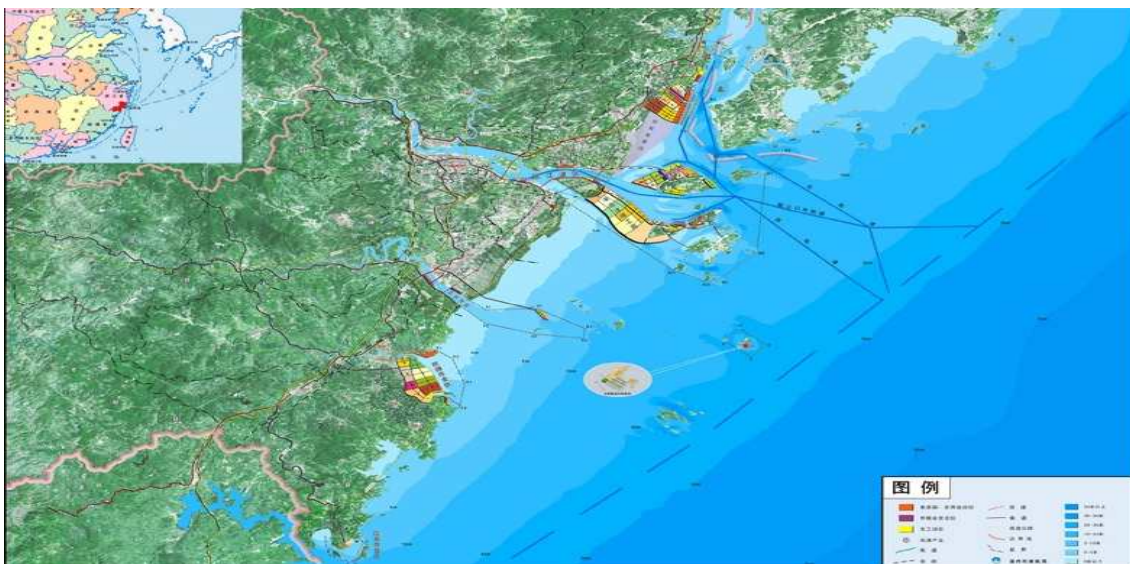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중국 원저우(温州)항 2015년까지 15개 선석 개발 예정

- 중국 저장성 원저우항은 국제화물 처리를 위해 2015년까지 15개 컨테이너선석 개발 추진
 - 저장성 남부에 위치한 원저우는 신발, 의류, 안경, 가구, 가죽제품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공업과 소매상업 중심지로 2010년 수출입액은 170억달러로 전년대비 42.5%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항만물동량은 2010년 65만TEU에 불과하나 2015년 125만TEU, 2020년 330만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수출입 물량은 저장성 유일의 수출입항만인 닝보-저우산항을 이용하고 있음
 - 급속히 증가하는 수출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12.5계획기간(2011~2015) 동안 컨테이너선석 15개 건설 추진
- 또한 항만활성화를 위해 시정부를 중심으로 국제항로 개설 추진
 - 시정부 주최로 국제항로 개설을 위한 '원저우항 컨테이너 국제항로 행사'를 2011년 4월 20일에 개최하였음
 - 시정부는 국제항로 개설 선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행사에 MAERSK, CMA-CGM, APL, NYK 등 글로벌 선사들이 참여하였음
- 향후 다양한 국제항로 개설, 신항만 개발 및 운영, 복합물류체계 구축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저장성 남부의 대표 항만으로 부각될 가능성 높음

<원저우항 조감도>



자료: <http://www.wzgh.gov.cn> 201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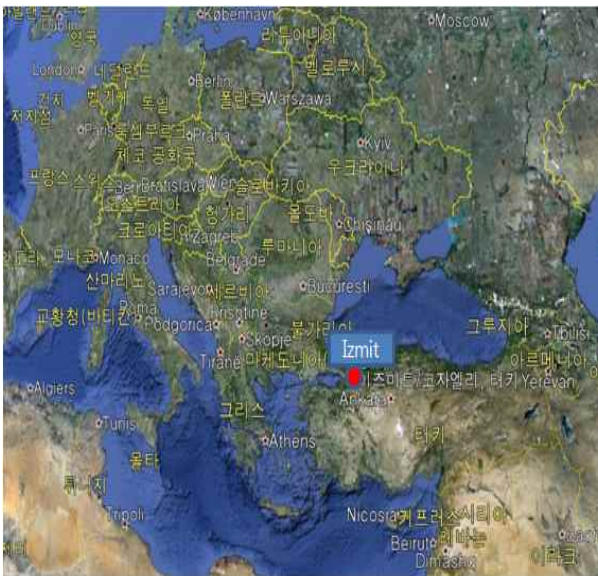
이주호 책임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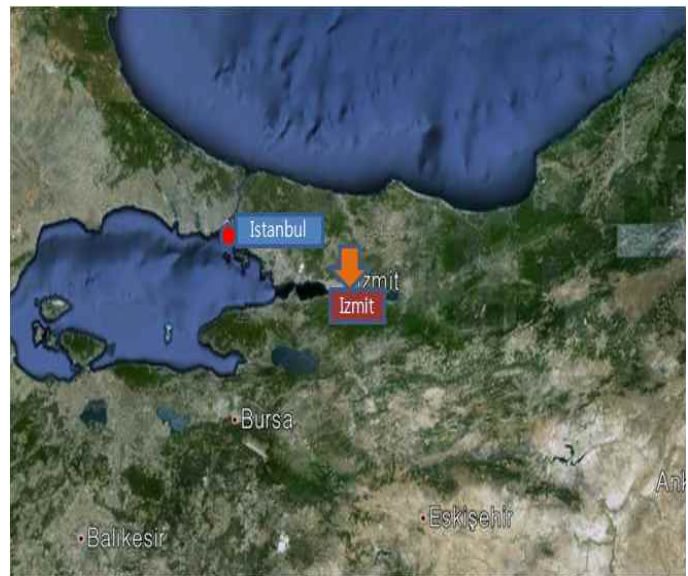
□ 터키 Hayat Kimyat사 세계적인 물류 플랫폼 건설

- 터키 Hayat Kimyat사는 160,000팔레트를 수용하여 시간당 850팔레트, 월 500,000팔레트를 취급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을 스페인 Mecalux사를 통해 건설할 예정
 - 물류의 최적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상면적 12,500m², 높이 45미터의 규모로서 기존의 250,000m²규모의 에너지 자가충전 장비가 갖추어진 공장옆에 건설될 예정
 - 이 시설은 시간당 850팔레트, 30대의 중량차량을 취급하여 하루 400대 이상의 트럭 및 월 500,000팔레트의 운송이 가능
- * Hayat Kimyat- 터키기업으로 Izmit에 본사를 두고 있고 청소화학용품, 위생용품 제조기업으로 터키와 아시아지역 선두권의 기업
- * MECALUX는 전세계 70여개국에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50년 이상된 스페인기업 기업으로 금속책장, 자동창고, 기타 통합창고 관련 디자인, 제조, 서비스 제공하는 세계 3위권의 글로벌 기업

<터키 Izmit위치>



<Izmit 창고위치>



자료: www.veintepies.com 2011.4.19. / www.mecalux.com 2011.4.12.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아일랜드 Belfast harbour, 9,200백만 파운드 투자 결정

- Belfast harbour기업은 2011-2013년 신규계획을 발표 총 9,200만 파운드를 항만 및 항만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발표함
 - 이중 4,000만 파운드는 덴마크의 에너지기업인 DONG Energy사와 합작하여 아일랜드항에 50 에이커의 해상에너지 공원을 건설한다고 발표
 - 2,500만 파운드는 다른 상업용 프로젝트에 배정되었고, 1,900만 파운드는 항만 크레인 구입을 포함한 항만관리비용으로 책정됨
 - 800만파운드는 항만 재정비에 사용하며 프로젝트 비용은 100% 내부자금으로 조달될 것이라고 언급함
- 9200만 파운드는 북아일랜드 지역경제의 활성화, 특히 건설경기 진흥에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아일랜드의 경기는 저조하지만 항만산업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더블린항도 Belfast 항과 같이 2030년까지 최대 100에이커를 매립하여 항만능력을 두배로 증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Belfast, Dublin 위치>



<Belfast항 현재>



자료: www.cargosystems.net 2011.4.20. / www.belfast-harbour.co.uk 2011.4.20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조사 목적

-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 관련 유망사업 발굴 및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조사 기간

- 2011. 4.25. ~ 5.31.

□ 신청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 신청 대상 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김현성/전태영, 02-2110-6372, 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